

중남미 코로나19 사망자 10만명 넘어서

브라질·멕시코·페루 확산일로
미국 25개주서도 환자 증가세
아프리카 대륙도 감염자 확산
2차 대유행 오나 전세계 초긴장

중남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23일(현지시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의 집계와 각국 보건당국 발표를 종합하면 현재까지 중남미 30여 개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10만2000여 명이다.
브라질 사망자가 5만2000여 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어 치명률이 12%를 웃도는 멕시코의 사망자가 2만3377명으로 뒤를 잇고, 페루(8404명), 칠레(4505명), 에콰도르

(4274명)에서도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다. 중남미의 코로나19 총 누적 확진자는 215만 명에 달한다.
확진자 115만 명의 브라질에선 하루 사이 4만 명가량의 확진자가 새로 추가됐다. 이런 가운데 브라질에서는 전체 국민의 24%에 해당하는 5000만명에 대해 코로나 19 검사를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일일 신규 확진자는 이날 처음으로 6000명을 웃돌며 다시 최고치를 고쳐 썼고, 누적 확진자는 19만1410명이다.
페루(26만819명), 칠레(25만767명)와 콜롬비아(7만3572명)에서도 하루 2000~3000명씩의 확진자가 추가되며 파르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의 전염이 계속 확대되면서 전체 50개 주 중 절반인 25곳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리조나주는 23일(현지 시간) 3591명의 신규 환자가 나오며 또 새 기록을 썼다. 사망자도 42명으로 코로나19 사태 후 가장 많았다. 입원 환자도 전날의 1992명에서 약 7% 증가한 2136명으로 증가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2일 5019명의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나오며 코로나19 사태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치는 그 전날인 21일의 4515명이었는데 이제 5000명도 넘어선 것이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입원 환자와 양성 진단율이 상승하면 자택 대피령을 일부 복원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전했다. 텍사스주에서는 22일 4500여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다.
플로리다주에서는 23일 3286명의 신규 환자가 나오며 누적 환자가 10만3503명으로 집계됐다. 최고점이었던 지난 20일의 4049명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많은 환자가 나오고 있다.

미네소타대학 전염병연구정책센터 소장 마이클 오스터홀름은 "2주 전에는 17개 주에서 환자가 늘고 있었는데 25곳으로 늘었다"며 "머지않아 더 많은 주를 환자가 증가하는 주로 분류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오스터홀름 소장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경제를) 재개하고 서로 접촉을 더 많이 하는 것에 대한 바이러스의 반응"이라고 덧붙였다.
미 존스홉킨스대학은 이날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232만5970명, 사망자 수를 12만771명으로 각각 집계했다.
아프리카 대륙도 코로나 19 감염자가 늘고 있다. 아프리카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3일(현지 시간) 오전 현재 대륙 전체 감염자는 31만5410명이고 사망자는 8334명이다.
한편,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 신파디(新發地) 시장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누적 확진자도 260명에 육박하면서 중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38°C 뜨거운 시베리아'

세계기상기구, 검증 작업

세계기상기구(WMO)가 북극권에 속한 러시아 시베리아의 기온이 최근 섭씨 38도를 기록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검증 작업에 나섰다. AP 통신이 23일(현지시간) 전했다.

클레어 누리 WMO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의 기상·환경 감시 기관인 로스기드 로메트와 함께 시베리아 베르호얀스크 마을의 기온 자료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시베리아 기온이 여름에 30도를 넘는 것이 이상하지는 않다면서도 "섭씨 38도는 분명히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누리 대변인은 이 지역의 위성 사진을 보면 높은 기온을 알리는 적색 덩어리만 보인다면 이상 고온 현상이 "매우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랜달 서베니 WMO 특별 보고관은 "WMO의 신속대응평가팀이 해당 기록을 합법적인 관측 기록으로 잠정 수용했다"며 "이는 당시 시베리아 상층 기류를 관측한 내용과 일치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WMO 대기 과학자 패널의 공식적인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며 검증 절차를 설명했다.

앞서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 현지 언론은 지난 20일 베르호얀스크의 최고 기온이 38도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북위 67.5도에 위치한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추운 거주지로, 6월 평균 최고 기온은 20도 정도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국경장벽 둘러보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애리조나 주 샌 루이스에서 200마일(321km)의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기념식에 참석해 장벽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미 시카고 경찰노조 '태업' 와중 우범지역 총기사고 폭증

미국 시카고 경찰 노조가 장기간의 비상근무 체제와 경찰 개혁-경찰 예산 삭감 요구에 불만을 느끼고 '태업' 분위기를 조성하던 와중에 시카고 우범지역에서 총기 사고가 폭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지난 주말 시카고 경찰 노조원들 사이에 '블루 플루' (Blue Flu)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가 돌았다.
'블루 플루'는 다수의 경찰관이 동시에 병가를 내는 파업의 한 형태로, 지역언론

이 입수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노조 차원에서는 이 방법을 권유할 수 없지만, 경찰관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CBS방송은 이들의 문자메시지에 "휴무일 반납을 하지 말고, 체포를 제한하고, 병가원을 내라"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전했다.
미국 '아버지의 날' (Father's Day)이 낀 지난 주말(금요일 오후 5시부터 월요일 오전 5시까지), 시카고에서는 최소

106건의 총기사고가 발생해 14명이 숨져 울머 총기사고가 가장 많았던 주말이었다.
한 제보자는 "경찰관들은 총격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사건을 수습하면서 동료에게 병가원 낼 것을 고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존 카탄자라 경찰 노조위원장은 "문자메시지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 없다"면서 노조 차원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北 계속된 핵활동 우려...제재 그대로 유지"

미국무부 군비통제 보고서

"다른 핵실험장 건설 가능성"

미국은 북한이 핵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큰 우려를 표시하며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 유지와 이행을 고리로 압박했다.
또 북한에 미확인 핵시설이 있을 가능성과 추가 핵실험장 건설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북한의 비핵화 협상 테이블 복귀를 촉구했다.
국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2020 군비통제·비확산·군축 합의와 약속의 준수 및 이행 보고서'에서 지난해 1년간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작년 2월 베트남 하노이의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처한 가운데 북한의 의미있는 비핵화 합의가 없다면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최대 압박' 속에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하는 기조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국무부가 매년 발간하는 이 보고서에는 북한 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이란 등 미국이 핵 활동을 감시하는 국가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2019년 내내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계속된 핵물질 생산에 관해 큰 우려를 계속 갖고 있다"고 적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북한의 핵 활동은 계속됐다는 인식인 셈이다.
국무부가 북한의 핵 활동 근거로 활용한 것은 작년 8월 나온 IAEA 보고서다. 북한의 2018년 핵 활동을 담은 이 보고서에서 IAEA는 북한의 영변 핵연료봉 제조공장에서 원심분리 우라늄 농축시설을 사용한 징후가 있고, 남동부 지역의 건물에서 화학적 처리 과정이 이뤄졌을 징후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국무부는 영변에 실험용 경수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는 IAEA 보고서를 인용하며 완공시 핵물질 생산에 사용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또 평산 우라늄광산과 우라늄공장으로 공표된 지역에서 채굴 등 활동이 있다는 보고서 내용을 전했다. 미국은 북한에 확인되지 않은 추가 핵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연합뉴스

멕시코 남부서 7.4 강진...멕시코시티 흔들

최소 2명 사망...쓰나미 경보

멕시코 남부 태평양 해안지역에서 23일 오전 10시 29분께(현지시간)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졌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진앙의 위치는 오악사카주 크루세티아에서 남서쪽으로 38.3km 떨어진 지점이며, 진원의 깊이는 26.3km로 비교적 얕다.
USGS는 당초 지진 규모를 7.7로 발표했다가 7.4로 수정했으며, 멕시코 지진당국은 규모 7.5로 발표했다. 멕시코 당국은 이후 300여 차례의 여진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인근 과테말라에서도 진동이 감지됐다.
지진 발생 이후 미 태평양 쓰나미(지진 해일) 경보센터는 멕시코 태평양 연안과 중남미 해안 지역 일대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센터는 "진앙지로부터 1000km 이내 어느 지역이든 최대 3m 높이의 파도가 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멕시코에선 이번 지진으로 현재까지 최소 2명이 사망하고, 진앙지 부근에서는 크고 작은 건물 파손 등이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시티 도심에서도 낡은 건물이 진동에 흔들리다 기울어 옆 건물에 기대서



거나 건물 외벽이 깨지는 등 건물 파손이 잇따랐다.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멕시코시티 시장은 시 정부 건물 4곳을 포함해 총 32건의 소규모 건물 파손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은 진앙 부근을 중심으로 한국인과 교민, 한국 기업의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인 가운데 멕시코시티 거주 60대 교민 A씨가 대피중 넘어지며 다리 골절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지진으로 700km 떨어진 멕시코시티에도 강한 진동이 나타났다.
멕시코시티에 사는 교민 최모 씨는 "강한 진동이 계속돼서 너무 놀라 황급히 대피했다"며 "2017년 8.1 지진 이후 가장 크게 느껴진 지진이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24시간 상담가능

직통전화 **062)416-6226, 010-6833-1600**